

#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과 기후정의 동지 되기

## - 330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을 다녀와서

김찬 기후정의팀 회원

지난 3월 30일, 충남 태안터미널 앞에 일방적인 자본 중심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전소 폐쇄로 구조조정에 내몰린 발전노동자들, 기후정의와 노동의 관점에서 함께 투쟁을 일궈가는 기후정의 동지들이 모였다. 우리는 과정보다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요구하며,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과정에 노동자와 농민, 시민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개입할 권리와 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노동조건 후퇴없는 충고용을 당당하게 외쳤다. 이 자리는 또 석탄화력발전노동자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생산 노동자 등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전환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함께 발화되는 연결의 공간이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속에 발전노동자의 일자리 보장은 찾아볼 수 없다.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발전노동자들은 석탄발전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대신,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에너지 민영화를 막아내어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노동조건이 후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단순히 충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넘어, 기후정의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 많은 사회운동이 각자의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협소하게 요구하고, 투쟁하기 쉬운 상황에서 활동가 뿐만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일자리를 지켜내는 동시에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말하는 구체적인 투쟁을 조직해낸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후정의행진과 기후정의파업에 참여했을 때와는 또 다른 마음가짐으로 태안 시내를 걸을 수 있었다.

### 현장의 목소리로, 언어로

가끔 기후정의운동에 처음 참여하는 동지들로부터 기후정의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



▲ 전기를 생산하던 당당한 노동자에서 하루아침에 기후악당 취급받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옆에서,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당신들을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기후정의 동지가 필요하다. 사진은 태안에서 열린 330 총남 노동자행진. 출처 : 백승호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선전전이나 모임에서 시민들에게 기후정의를 설명할 때, 추상적이고 가닿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반면, 기후정의를 자신의 삶의 문제로, 구체적인 의제와 현장을 가지고 싸우는 에너지 노동자들의 말은 달랐다. 평소 기후정의운동을 접하며 들어왔던 화려한 말들보다 현장의 노동자들이 하는 말들이 더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다. 기후위기의 책임을 자본의 책임으로 규명하고, 상호의존과 돌봄 등 새로운 언어로 체제전환을 설명해왔던 활동가들의 말들도 중요했지만, 이와는 사뭇 다른 힘이 느껴졌다. 활동가 언어와 현장의 언어가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지만 체제전환을 다양한 언어와 논리로 버려가는 과정에서 실제 현장의 경험과 언어가 빠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행진은 스스로에 질문을 던지는 계기였다. 우리가 기후정의 투쟁에서 쓰고 있는 말들은 아래로부터 조직되고 있는가? 또, 우리가 만들어낸 말들은 현장과 어떻게 호흡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번 행진을 참여하는 내내 눈에 들어왔던 것은 구호나 공연, 여러 인사들의 발언이 아니었다. 집회 대오 좌측에 앉아있는 노동자들의 표정이었다. 그러던 중, “산업과 생활의 필수재인 전기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가져왔지만 “석탄발전이 기후위기 주범으로 지목되고, 폐쇄되는 상황에서 기후악당이 된 기분”을 느꼈다는 한 석탄발전노동자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이 무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재생됐다. 동시에 어둡고, 집회에 집중하기 어려운 듯한 노동자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기후정의 동지’들은 이어지는 공연과 퍼포먼스를 즐기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을 보며 괴리감까지 느꼈다. 행진하는 내내 ‘내가 만약 석탄발전소 노동자였다면 지금 행진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걸었다. 행진 대오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텅빈 시내를 걸으면서 영상에서 들

었던 발언의 의미를 곱씹었다.

영상 속 발언에서 기후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자본에 대한 분노도 느꼈지만, 사회로부터 배신받았다는 감정이 크게 느껴졌다. 발전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웃들, 도시의 시민들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기를 생산해왔다. 국가와 지역 경제 역시 이들의 자부심이 담긴 전기 생산노동에 의존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은 전세계적 흐름이고, 생존을 위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며 ‘발전소 문 닫을 거니까 이제 알아서 살길 찾아 나가라’고 발전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회로부터 쓸모없는 존재로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 당신들을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없어져야 할 노동으로 낙인찍히고, 일터에서 쫓겨나며 사회에서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조건에서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노동권이라는 현란한 언어와 논리들은 와닿지 않았을 것 같다. 그보다도 사회는 당신들을 남겨두지 않을 것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책을 바뀌가는 과정 속에서 당신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는 동료시민들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전 사회적인 지지와 연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와닿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어두웠던 표정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충고용이 보장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현실성과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회가 전환이라는 긴 고속도로에 자신들을 내버려두고 질주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 행진이 마냥 즐겁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기후정의 동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의 옆에 서서 기후위기 주범은 당신들이 아니라고,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당신들을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동지가 필요하다. 그래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공공재 생에너지 쟁취가 노동자들에게 와닿는 현실이 될 것 같다.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하는 금속노동자 동지가 말했다. 전기차 도입으로 인해 내연기관 부품공장은 폐업의 위기에 처했고, 새롭게 생기는 전기 배터리 공장은 100%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이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전환이라는 명분으로 자본은 노동자를 일터에서 내쫓으며 발악하고 있다. 어쩌면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터를 잃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늦기 전에 기후정의의 언어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을, 노동자의 힘으로 기후정의를 일궈내는 싸움을 조직해야 한다. 앞으로 열릴 기후정의를 외치는 노동자들의 현장싸움에 함께하자. 